

“행복한 가정 되려면 지혜롭게 소통해야”

이근후 명예교수, 포교연찬회서 발제

가족 간 소통을 통한 갈등을 극복해 행복한 불자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공동으로 10월 31일 '2013년 세미나 및 연찬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족이카데미 원장)의 '불자가정의 가족 간 대화법'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를 비롯해, 이경애 청소년심리상담사 원장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법', 서진숙 교수(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의 '부부 및 고부간 대화와 소통'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근후 명예교수는 불자가정의 가족 간 대화법에 대해 "우선 상대에게 귀를 여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발심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입(口)과 귀(耳)를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인(聖人)"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명예교수는 가족 간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로 팔정도(八正道)와 무제칠보(七無量心)를 제시하며 "지식보다 지혜로써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며, 불성이 열리면 곧 지혜가 열린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경애 소장은 "부모의 유형에는 자애로운 부모, 엄격한 부모, 자애롭지도 엄격하지도 않는 부모,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부모의 4가지 유형이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육과 훈육이 다 들어 있는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부모다. 자녀의 성장을 도우려면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원장, 국무총리 표창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지난 10월 28일 법무부 주최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 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이인자 초대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원장

이인자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디자인공예학부 명예교수로서 2004년에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에 위촉된 이래 총 112회 사형수 교화상담시행 및 미술교육지도, 간식, 그림도구 지원,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수용자종교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형수(724 이○○) 종교상담 및 그림 지도를 성실하게 이끌어, 2012년 10월 제41회 교정작품전시회 문예부문에서 대상을 타도록 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근은 기자

충북 대성사, 인연맺기 행사 마련

11월 16일 경내서 20쌍 맞선 자리 마련

충북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충남 청양군과 손잡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펼친다.

청양군청 공무원과 지역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성사는 11월 16일 경내에서 청양지역 미혼남성 20명과 증매카페 여성회원이 맞선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성사는 2005년 인터넷 증매카페인 '따뜻한 만남(http://cafe.daum.net/dasungsa)'을 개설해 매달 한 차례 선남선녀 인연맺기 특별법회를 마련해 지금까지 1천여쌍의 인연을 맺어왔다. 또한 올 초 충북도, 충북도교육청과도 선남선녀 인연 맺기 협약을 했다. 이근은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법회

종 정 명 진 석범은 대종사



종 정 명 진 석범은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중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범백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원로의장 보운**
원로총무 송담 원로위원 월현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정인
원로위원 수덕
- 총무원**
총무부장(대행) 재무부장 월산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해오 법규위원장 설산
환경위원장 혜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청명

- 총무원장(대행)**
행정위원장 도경 사정위원장 법륜 문화위원장 진송
교육위원장 청담 포교위원장 동화
비구니위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위원장 설봉
- 총무원**
경북1총무원장 월정 경북2총무원장 성덕
경북3총무원장 혜득 경북4총무원장 해산
대구1총무원장 광덕 대구2총무원장 해산
서울1총무원장 일휴 경기1총무원장 원담
충청1총무원장 계현 강원1총무원장 연정
전라1총무원장 법도

- 임중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법회안내

- ◆ 일시 : 2557년 11월 11일 월요일(음 10.9일)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 054)974-2605

종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95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불교세계화, 조계종이 묻고 외국인이 답하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외국어 가능자 대상 템플스테이 열어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10월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외국어 통·번역자 15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2주간 불교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외국인들에게 홍보해 왔다.

이날 행사는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과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성립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한국 불교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넓히기 위한 첫 단계는 불교 의식집 통일, 홍보 전략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진관사 기화국장 도은 스님의 친절한 사찰 소개로 일정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후 연잎밥과 덕터샐러드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을 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연잎밥을 먹으며 요리과정의 간소함에 놀라고 한국 사찰음식에 감탄했다. 대다수는 템플스테이 참가가 처음이었다.

연등축제 때 일어로 통역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재일교포 양정연 씨(41)는 "일본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종교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지 못했다"며 템플스테이 등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음식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참가자들이 주최측과 외국인 불교의식집 정비 사업 등 이날 일정에 대해 대중공사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음식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참가자들이 주최측과 외국인 불교의식집 정비 사업 등 이날 일정에 대해 대중공사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불교세계화 첫 단추는 의식집 통일부터

영·중·일어는 기본...러시아어까지 고려해 주길

한국불교 세계화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

한국 불교의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화에 부러움을 표했다.

조계종 홈페이지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는 이연(31.동국대 중국어과 박사과정)씨도 "오늘 두 살배기 딸과 남편이 함께 참여했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힐링받는 느낌이었다"며 "아이가 커서도 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대중공가 진행됐다. 템플스테이를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삼귀의 등을 번역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관한 토론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한글을 발음대로 번역하고 그 뜻을 영

어·중국어·일어로 풀어준다든 주최측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며 동조의 뜻을 나타낸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의식에 동참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고 첨언했다. 윤미경 씨도 "직지사에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신청을 하면 입재 이전에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숙지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면서 "원활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서 스매약 시스템의 통일화 △상시 체험 가능 △음식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삼귀의,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의 의식집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배현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대한불교삼보회, 첫 지도법사 배출

10월 20일,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식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엄근웅)는 10월 20일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삼보법사들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홀로 떠나셨던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 가는 곳마다 신심이 견고하고 발심하는 불자가 한량없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40여년간 법회·선원 등을 통해 도심포교를 하고 있는 재가불자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가 첫 지도법사를 배출했다.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엄근웅)는 10월 20일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삼보포교사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증명법사로 제1기 삼보법사 13명, 제6기 삼보포교사 10명이 품수했다. 법사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처음으로 배출된 13명의 삼보법사는 향후 법사인력이 부족한 군·교·도·소·병·직장 등 포교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삼보회는 2002년 설립된 삼보사이버불교대회를 통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또한 군부대·병

원·포교원 등을 개설해 여러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해왔다.

대한불교삼보회는 "최근 포교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지도법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별도의 법사과정을 개설해 2년 이상의 포교경력을 가진 포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이근은 기자

조계사·직장직능전법단

11월 23~26일 바자회

소년소녀가장 학비 마련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와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단장 이선목)은 11월 23~26일 경내에서 '2013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세계 어린이들과 국내 소년소녀가장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바자회다.

행사에는 지난해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이 진행한 33인 CEO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펼친 대표기업들이 참여한다. 천호식품, 한경희 생활과학, 샘표식품, 블랙아크, 대상이텍, 영도벨트 등에서 후원한 물품을 만날 수 있다.

수익금 전액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등을 통해 주로 소년소녀가장들의 학비와 국외 어려운 어린이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근은 기자

호법봉사단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려히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방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행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척추, 골반, 관절 통증 효과 입증 ◇월경 상황 속뜸방 운영
◇효과적 입증된 훈증침대 (특허출원번호:제10-2011-011722호)
스님은 무보시로 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2000번지 건장사 주지 청진 합장
053)763-7510 / 011-572-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